



**IBK기업은행, 레슬링·역도 공식 파트너 후원 협약**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레슬링과 역도 종목의 공식파트너 후원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레슬링과 역도 종목의 공식파트너로서 유소년 유망주 육성, 국가대표팀 지원 등에 3년간 총 6억원을 각각 후원하기로 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가운데)이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IBK기업은행



**효성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4000만원 기탁**  
 효성은 마포구청에 '2023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한 성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효성은 마포구 '2023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는 처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된다. 최형식 효성 커뮤니케이션실 상무(오른쪽)와 박강수 마포구청장. /효성



**중외학술복지재단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 개최**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16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2022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독한 인간을 기묘한 동물에 빗대어 다채로운 색깔로 그려낸 양진영(만 18세, 청각장애) 작가가 수상했다. 이경하 JW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이 '2022 JW 아트 어워즈' 대상 수상자 양진영 작가(왼쪽 첫번째)에게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JW그룹

**인사**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도로시설안전과장 김형철 △혁신도시산업과장 원종덕 ◇과장급 전보 △UN-E SCAP 파견 김동익
- ◆서울시설공단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 ◆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 이종우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략홍보실장 정성운

**부음**

- ▲서찬석씨 별세, 손학자씨 남편상, 서정민(중앙SUNDAY 문화부장)·서정원씨 부친상, 임준택(전 무비유키 편집장)씨 장인상 = 16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8일 오전 11시. 02-2072-2028
- ▲이종은씨 별세, 이도영(KBS 제주방송총국장)·이관영(세경상사 대표)·이경자씨 부친상, 팽종술(두영상사 대표)씨 장인상, 김영진·김영주(농인중교사)씨 시부상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서현추모공원. 064-749-7410
- ▲구민자씨 별세, 이천재·이훈재(남자농구 국가대표 코치·전 여자프로농구 부천하나원구 감독)·이운재씨 모친상, 심난석·추현주·이경연씨 시모상, 이종빈·이종훈·이소정·이재형(웅산고 농구선수)씨 조모상 = 15일, 캐나다 토론토 맥킨지 병원, 발인 19일.

# LG유플러스, 협력사와 소외 이웃에 온정 나눈다

**홀로사는 어르신 875가구에 식료품 '사랑의 꾸러미' 전달**

LG유플러스는 연말연시 앞두고 협력사와 함께 이웃에 온정을 나눈다. LG유플러스는 홀로 사는 어르신 875가구에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한다.

LG유플러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협력사 협의체인 'U+동반성장보드'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9' 행사를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LG유플러스와 복지센터, U+동반성장보드 회원사인 협력사 소속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쌀을 비롯한 식료품을 담은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축소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연관 단체에서 봉사자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LG유플러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협력사 협의체인 'U+동반성장보드'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9' 행사를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

또한 U+동반성장보드 협력사의 기부금이 지난해 대비 150% 상승하는 등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U+동반성장보드는 LG유플러스의 30개 협력회사로 구성된 동반성장 협의체로, 동반성장 관련 제도 및 시행 내역을 공유하며 LG유플러스와 협력사 및 협력사들 간 소통의 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동반성장보드 의장사인 명진정보통신 방극운 부사장은 "LG유플러스와 매년 함께 하는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9'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행복을 느끼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유플러스 보드사의 참여로 예년보다 풍족한 사랑의 꾸러미 행사가 이루어져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사랑의 꾸러미를 받

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김중섭 동반성장/구매담당은 "협력사와 함께 꾸준히 소통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사랑의 꾸러미 제작 활동을 매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들과 함께 더 많은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쓰레기 줍고 기부하고... LX세미콘, 일상속 ESG경영 실천

'함께해요, ESG 경영!' 캠페인 '플로깅', '기부마켓' 등 이어져

LX세미콘이 임직원들과 함께 ESG 경영을 다짐한다. LX세미콘은 '함께해요, ESG 경영!' 캠페인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로깅'과 '기부마켓', ESG 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N행시 대회' 등으로 이어진다. LX세미콘은 캠페인 일환으로 15일 전국 사업장 임직원 1600여명과 함께 플로깅을 진행했다. 각 사업장 코스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며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LX세미콘 임직원들이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21일에는 기부마켓, 30일까지는 N행시 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부마켓은 임직원이 기부한 물품을 사내 게시판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방식

이다. N행시 대회는 ESG 경영과 관련한 주제로 짧은 글을 지어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LX세미콘 대표이사 손보의 사장은 "사회, 환경 분야에 기여하고 일상 속 ESG 경영 실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ESG 경영을 내재화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X세미콘은 지난 4월 'ESG 비전선포식' 개최하고 6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7월 ESG 위원회 신설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만들어가는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이대목동병원, 40분 넘는 CPR로 환자 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대기 24시 패스트트랙 시스템 운영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40분이 넘는 심폐소생술 끝에 환자를 살렸다. 이대목동병원은 급박한 사안에 대해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는 '24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5일 병원측에 따르면 평소 위궤양을 앓고 있던 50대 박 모씨는 다발성 위궤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출혈과 이로 인한 빈혈로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박 모씨는 처음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빈혈수치가 7.2를 기록할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 그리고 오후 8시 경, 응급실 접수 중 과다출혈로 인해 의식이 소실돼 심실성 부정맥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에 의한 심장마비가 찾아왔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24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발동,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이 뛰어들어 치열한 심폐소생술은 40분이 넘게 진행됐다. 8시 40분을 넘긴 시각, 박 모씨의 심장이 돌아왔다. 일반적으로 심장이 순환하지 않으면 4분부터 뇌손상이 발생하

고 10분 후부터 다른 장기의 손상이 발생하는데, 박 모씨는 40분이 넘는 심폐소생술에도 합병증이 없었다. 이어 소화기내과 정혜경 교수가 응급 내시경으로 위출혈을 지혈했고, 순환기내과 박준범 교수가 부정맥 시술을 시행해 응급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 모씨는 지난 달 12일 시행한 추적 검사 결과, 심장과 위 모두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말끔히 회복됐다. 정 교수는 "야간이었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던 어려운 CPR이었다"고 회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모두 끝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을 실행했기 때문에 환자의 심장이 돌아오고 합병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16일 성남시 분당구 SK u타워에서 비대면 행사로 열린 '2022 동반성장 Day'에서 SK(주) C&C 신용운 구매담당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SK(주) C&C

## SK C&C '동반성장 데이' 150개 BP사와 ESG 실천 다짐

SK C&C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SK-u타워에서 '2022년 동반성장 데이(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데이는 BP(Business Partner)사와 지속적인 상생 및 ESG 실천의지를 다짐하고, 올해 동반성장 활동 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 이후 8년째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신용운 SK(주) C&C 구매담당을 비롯해 150개 BP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성하 SK(주) C&C 대표이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SK(주) C&C와 함께 국내 산업 곳곳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동반 성장을 이뤄온 BP사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SK(주) C&C는 올해 산업별 디지털 애셋(Digital Asset) 중심으로 BP사에게 기술 이전 및 전문 인력 육성, 시장 공동 발굴 등을 지원하며, BP사들과 함께 신규 고객 100여 곳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8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최빛나 기자 vitna@